

낙양춘

洛陽春

낙양춘(洛陽春)

〈낙양춘〉은 송나라의 구양수(歐陽修)가 일락색(一落索)이라는 악곡에 맞추어 쓴 사(詞)의 노랫말 제목으로 『고려사』 권71 당악조에 전한다. 사(詞)는 선율이 먼저 있고 이에 맞추어 노랫말을 창작하는 송나라 시대의 문학·음악 양식을 말한다. 이 때 한 가지 선율에 반드시 하나의 가사만 붙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곡조 하나에 대해 여러 종류의 노랫말이 창작될 수 있었고, 〈낙양춘〉이 바로 그 중 하나였다. 조선 초기 연향에 관한 실록 기록에서 ‘송산조(松山操)를 부르되 낙양춘조(洛陽春調)를 사용한다.’, ‘칠월편(七月篇)을 노래하되 낙양춘조(洛陽春調)를 사용한다.’라고 할 때의 이 ‘조(調)’가 바로 사(詞)의 음악요소인 사조(詞調)를 뜻한다.

미전사와 미후사로 나뉘는 노랫말에 해당하는 선율 구조는 각각 A · B · C · D / E · B · C · D 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즉, 미전사와 미후사의 머리 부분 선율은 서로 다르고 둘째 구부터는 동일한 선율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 때 반복되는 선율을 ‘환입(換入)’ 부분이라 하고, 다른 선율로 바뀌는 머리 부분을 ‘환두(換頭)’라고 한다.

조선시대 〈낙양춘〉은 주로 왕세자가 조참(朝參)을 받고 궁으로 들어올 때 연주하였고, 연향에서 임금에게 탕(湯)을 올릴 때에도 연주하였다. 영조 이후로는 신하들이 임금에게 배례할 때 〈낙양춘〉을 연주하였다. 〈낙양춘〉은 송나라에서 함께 들어온 〈보허자〉가 조선 후기에 궁중 밖에서 여러 파생곡을 낳은 것과 달리 궁중에서만 연주되었고 파생곡도 없다.

현재의 〈낙양춘〉은 『속악원보』 권4와 권6의 〈낙양춘〉과 같은 선율을 연주하는데, 권4의 경우 환입(換入)이라는 표시가 두 행 앞당겨진 39행 위에 있다. 총 41행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원래 환입 부분의 첫 음까지만 기록된 셈이다.

〈낙양춘〉이라는 제목의 가사가 붙어있던 이 악곡은 조선 후기에 기악곡화되어 전승되었다. 『속악원보(俗樂源譜)』 권4와 권6의 〈낙양춘〉 악보에도 가사가 없다. 1960년에 이혜구 박사가 “낙양춘 고”에서 가사를 붙인 후에는 노래를 수반하여 연주하기도 한다.

현재 편종·편경·방향·당피리·대금·당적·해금·아쟁·장구·좌고·박 등으로 편성하여 연주하며, 황·태·고·중·임·남·응의 7음음계를 사용한다. 〈기수영창지곡(其壽永昌之曲)〉이라는 아명은 비교적 근래에 붙여진 이름이다.

一分五十井

낙양춘

洛陽春

기수영장지곡

其壽永昌之曲

黃♀	潢	仲	林	潢	黃♀
太	南	△	△	汰	△
林	潢	南	潢	潢	林
太	汰	潢 太	林♀	△拍 2	仲
△	潢	南	△	南♀	黃♀
仲♀	△拍	林	潢	△拍 1	△
姑	汰♀	仲	林♀拍	潢♀	太♀
太	潢	南	潢 林	汰	△
△拍	南	仲	仲	潢	林
黃♀	△	△	汰	南	太♀拍
△	林♀	太♀	△	林	林 太
太♀	南	仲 太	潢♀	△	△
林	林	林	汰	潢	黃♀
太	仲	太	潢	林♀拍	△
黃	△	△拍	南	潢 林	太♀
△拍 2	南	仲 太	林	仲	林
仲♀)	潢	△	潢	△	太
△拍 3	△	潢	南♀	黃	△ 2
太♀	汰♀	林♀	潢 南	潢 南	南♀
△	汰 汰	潢 林	應		